



전국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연구자 : 이영수, 강현지, 김나리, 김민지, 김수빈, 이지원, 최윤희, 한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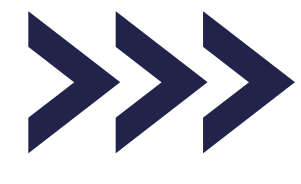
지도교수 : 반금옥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성, 연애, 결혼과 관련된 강의 수강에 따른 출산의지와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

긍정적인 결혼관과 출산의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중재가 요구됨



따라서 결혼관과 출산의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출산의지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결혼관과 출산의지 확립에 필요한 정책과 교육의 기초 자료로 기여하고자 함

연구 목적

- 첫째, 대상자의 결혼관과 출산의지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과 출산의지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 서술적 조사연구

2. 연구대상자

- 서울 등 6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95명 선정
- G*Power 3.1.9.4 프로그램 결과 권고 표본 수 184명 (p=0.15, α=0.05, 1-β=0.95)

3. 연구도구

- 결혼관 (총 30문항, Likert 5점 척도, cronbach's α=.69)
- 출산의지 (총 23문항, Likert 5점 척도, cronbach's α=.71)

4.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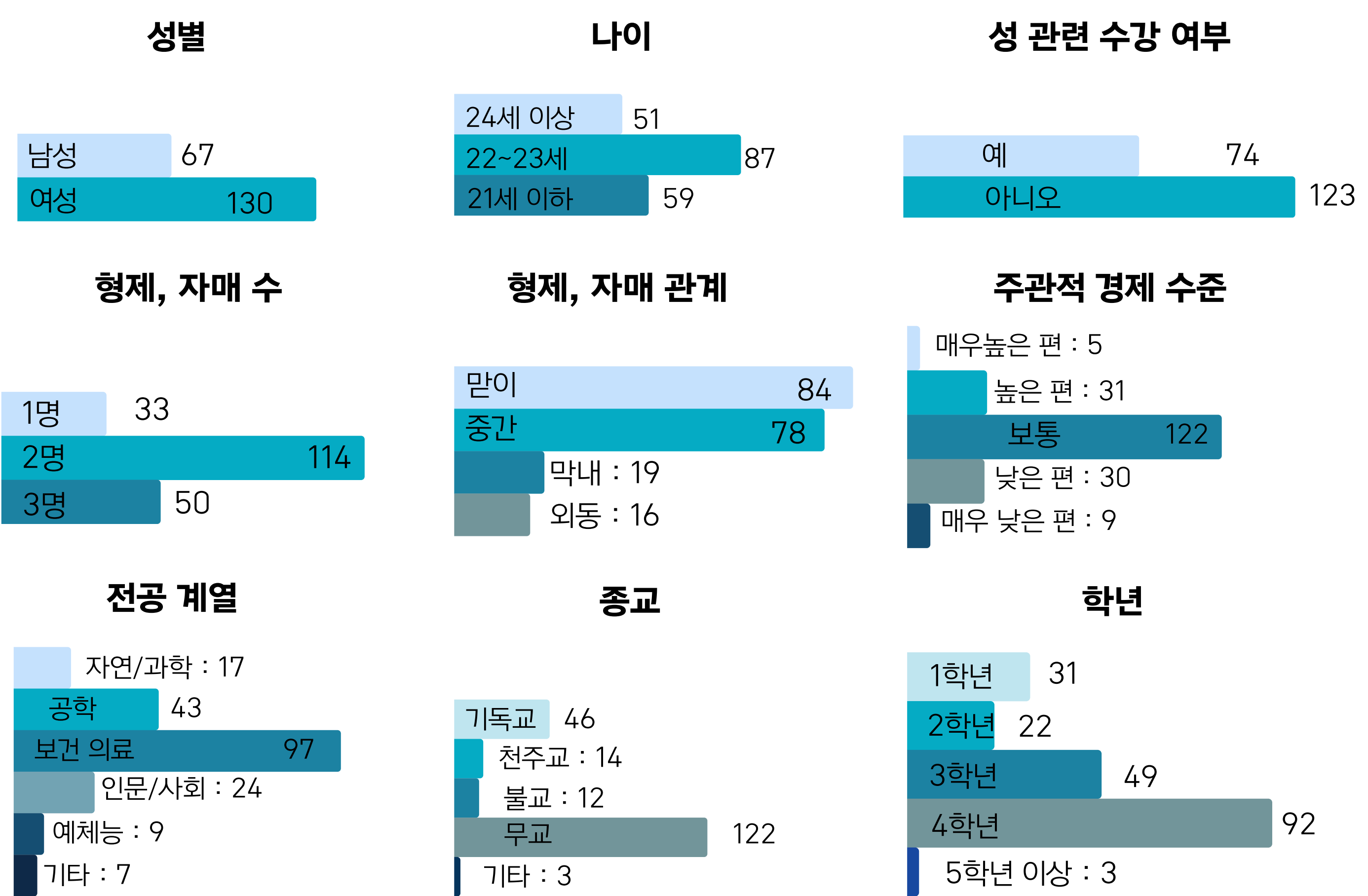
- 2023년 6월 3일 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5. 자료분석

- SPSS 프로그램을 사용,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분석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N=195)



결혼관과 출산의지 상관관계

	결혼관				출산의지				
	정신적 필요와 동반자	바람직한 결함	경제적 안정	고통과 구속	개인적 요인인	가족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결혼관	1								
정신적 필요와 동반자	.842 ($<.001$)	.759 ($<.001$)	.218 (.002)	.496 ($<.001$)	-.038 (.597)	-.109 (.127)	-.239 ($<.001$)	-.055 (.439)	.318 ($<.001$)
바람직한 결함		1							
경제적 안정		.497 ($<.001$)	1						
고통과 구속		.203 (.004)	.150 (.035)	1					
출산 의지		.191 (.007)	.171 (.016)	-.011 (.874)	1				
개인적 요인		.071 (.324)	-.024 (.733)	.024 (.733)	.690 ($<.001$)	1			
가족적 요인		-.167 (.019)	-.061 (.395)	-.061 (.395)	.701 ($<.001$)	.416 ($<.001$)	1		
경제적 요인		.265 ($<.001$)	.310 ($<.001$)	.310 ($<.001$)	.822 ($<.001$)	.414 ($<.001$)	.472 ($<.001$)	1	
정책적 요인		.196 (.006)	.196 (.006)	.196 (.006)	.407 ($<.001$)	-.058 (.418)	-.005 (.950)	.250 (.004)	1

결혼관 기술통계



출산의지 기술통계



논의 및 결론

예비부모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대학생들의 결혼관과 출산의지를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음

전국 대학생의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관관계를 확인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는 24살 이상이 21살 이하보다 높게 나타남

나이가 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

결혼관과 출산의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적요인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대학생들은 출산 후 가족들이 자녀 양육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따라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결혼관과 출산의지의 하위요인인 정책적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출산 장려정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출산의지와 결혼관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안정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경제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육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출산의지와 결혼관의 하위요인인 고통과 구속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결혼은 본인의 자유가 구속되며 자아성취를 중요시하는 사고의 경향성을 가진 대학생들은 출산의지가 약하여 출산을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됨

제언

광범위한 지역과 전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충북 지역과 간호대학생이 과반수 참여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됨

따라서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반복 연구하기를 제언함